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간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Old-Age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s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 사 이 나 영**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교수
교 수 장 윤 옥***
경북대학교 가정교육과
강 사 정 서 린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Hom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Master Lee, Na-Young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Jang, Yoon-Ok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Jeong, Seo-Leen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을 일부 수정한 것임
** 주저자 : 이나영(09swing07@naver.com)
*** 교신저자 : 장윤옥(yojang@knu.ac.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ehold income,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private education expenses, and old-age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s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comprised 393 mothers living with children aged 8-19 in Daegu. All participants had wage-earning husbands.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llect the data.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and structur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AMO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participants' old-age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s were influenced by their household income, the propor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they paid, and the perceived burden the participants had of thes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The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propor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paid by the participants. Household income, propor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and perceived burden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had a direct effect on the old-age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s of the participants. When the perceived burden of the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s was mediated, the 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in 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ir old-age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s.

Key Words : 가계소득(household income), 교육소비욕구(consumption wants for education), 사교육비(private education expenses), 경제적 노후준비(old-age economic preparation behaviors), 학령기 어머니(mothers with school-aged children)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록 진행되어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55~65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사회적·경제적으로 은퇴 후 노후에 대한 관심과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베이비붐 세대 가계들은 노후를 대비한 보유자산은 매우 적고, 학령기 자녀가 가계를 떠나는 시점인 40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가계 저축률이 비로소 상승하기 시작한다(이철용·윤상하, 2006). 이러한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켜보는 30~40대의 학령기 부모들은 아무런 노후준비 없이 노년기를 맞이하지 않도록 30~40대부터 은퇴 이후의 사회적·경제적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할 필요성(박주선, 2007)을 절감하다.

여러 연구들(장민자, 2003; 박미연, 2008)이 노후생활에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서 30~40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시기는 가족생활주기 단계 중에서 자녀교육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자녀교육열이 높은 30~40대의 우리 나라 학령기 부모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자녀 학령기에 가계의 목표와 소비지출을 자녀중심적으로 행하는 경향이 많아(김시월, 1999) 학령기 가계에서는 자녀교육비가 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자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손상희·정영숙, 2003)이다. 이처럼 학령기 가계는 1차적 재무목표로 자녀교육비를, 더 장기적인 재무목표로 은퇴준비나 주택마련에 따른 대출금 상환

등을 설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학령기 가계는 자녀교육, 특히 사교육비의 지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가계의 기타 다른 소비지출과 저축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김민정・김기옥, 2008) 이 중에서도 노후대비 자금을 가장 먼저 줄인다(양정선, 2009). 즉 부모들은 제한된 가계소득으로 자녀교육과 노후준비라는 두 가지 과업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녀교육을 위해 자신의 노후준비를 희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이승신, 2012; Todd & Sharon, 1997)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가계의 현재의 삶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미래의 삶의 질 또한 저하시킬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령기 가계는 초・중・고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로 초등학생이 23만 2000원, 중학생이 27만원, 고등학생이 23만원을 지출(통계청, 2015)하고 있어 자녀 연령에 관계없이 상당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수치는 2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90년도 94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420만 3천원으로 약 4.5배 증가했으나, 동기간 교육비는 5만원에서 29만 2천원으로 5.8배 증가(박문수・최재영・박지혜, 2014)하는 등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소득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감을 주고 가계재무 상태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은 가계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박미희・여정성, 2000; 김은미, 2002; 이성림, 2002),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사교육비의 지출비중이 더 높고(김은미, 2002; 홍성우, 2009; 박문수・최재영・박지혜, 2014), 사교육비의 규모는 늘어나지만 사교육비의 지출비중은 오히려 낮아진다(김선희, 1997). 또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크고(서혜경, 2004), 동일한 가계소득을 가진 가계라 하더라도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차이가 있다(장윤옥, 2013). 그리고 학령기 부모들은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사교육비를 지속적으로 더 지출할 계획(이성림, 2006)이며, 사교육에 대한 교육소비욕구가 높을수록 가계경제에 부담이 될 확률도 높지만(강이주, 2007),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을 때는 주관적인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김인숙・여정성, 1996) 등 다소 상반된 보고들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과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은 가계소득과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 그리고 이로 인한 부담감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계지출의 한계를 규정하는 가계소득 뿐 아니라 가계지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 또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 학령기 가계는 노후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노후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축한 돈이나 노후대비 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고정옥, 2004; 양정선, 2009)하거나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불하고 있고(Todd & Sharon, 1997),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다(박미연, 2008). 이러한 이유로 많은 선행연구(고정옥, 2004; 유경원, 2007; 이선형, 2009)들이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부족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교육비를 지목하고 있으며, 사교육비의 증대는 노후대비저축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현대경제연구원, 2007)되고 있다. 또 학령기 가계들은 월평균 5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하며(박미연, 2008), 노후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52.5%로 가장 많은(통계청, 2013) 것으로 보아 학령기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는 자녀교육에 대한 과도한 지출로 인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과도한 교육투자와 노후생활의 경제적 불안에 대한 연구들(박미연,

2008; 이선형, 2009; 한국교육개발원, 2011)이 있어 왔으나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시키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경제적 불안이 야기되고, 노후준비가 미흡하여 이는 노후생활의 복지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을 매개로 하여 경제적 노후준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보다 분명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경제적 노후준비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경제적 노후준비를 위해 이용하는 방법(김수현, 2009; 손원, 2010; 유인순・최수일, 2012; 이해근, 2006; 함상희, 2010), 인구학적인 요인에 따른 노후준비방법(박창제, 2008), 노후준비 정도(홍성희・곽인숙, 2006; 박창제, 2008;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노후준비 적절성(양세정・이성림, 2008), 그리고 노후준비 저축 여부(홍성희・곽인숙, 2006) 등에 대한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어 왔다. 이처럼 경제적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도와 노후준비금의 지출규모나 노후준비금 마련 방법 및 경제적 노후준비의 수단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방법 등에 관한 연구들만 있을 뿐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서는 경제적 노후준비방법에 관한 가계의 재무관리적 준비행동에 대한 연구와 노후 생활자금 설계 및 준비에 관한 교육과 상담(김문을, 2002; 한혜진, 2013)과 같은 정보탐색적 노후준비행동에 대한 연구가 서로 개별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은 노후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출과 관리행동과 노후준비를 위한 교육 및 정보탐색 등의 준비행동이 함께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전반적인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간의 인과적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 때 가계의 사교육비는 사교육비 지출비율과 지출부담감으로 구분함으로써 실제 가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사교육비의 객관적 특성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 이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실질적인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검증하여 이들의 관계를 제시하고, 학령기 가계일수록 자원배분이 더욱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시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경제적 노후준비는 노후자금 마련, 노후자금 활용방안, 노후 주택계획,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 정보 수집 및 교육 등 노후생활에 대비한 경제적 부분의 대비를 의미하며(장윤옥, 2013),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은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실제로 현재 실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말한다. 이러한 경제적 노후준비를 30~40대 직장근로 소득자들은 노후의 가장 큰 문제(박주선, 2007)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대비 경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경우와 세우고 있지 않는 경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 은퇴를 하기 전부터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정애리, 2007)고 하겠다.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중년층의 반 이상이 노후대비에 대한 계획을 구상중이거나 계획만 세운 상태(임경은, 1999)이며, 자녀학령기 가계의 80%가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가계는 월평균 5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하고 있는(박미연, 2008) 등 최근 조사일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도가 높아지고(삼성경제연구소, 2007; 박미연, 2008; 이승신, 2012) 있다.

손원(2010)의 연구에서 중년기 가계들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개인연금이나 보험, 그리고 금융기관을 이용해서 경제적 노후준비를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부동산 투자, 건물임대, 그리고 기타 다른 준비방법을 사용하는 가계의 비율은 낮았다. 반면,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노후준비를 살펴본 유인순・최수일(2012)의 연구에서는 노후를 위해 다른 직업을 구상중이거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김문을(2002)의 연구에서는 노후 생활자금 설계 및 준비와 건강관리에 대한 노후교육과 상담을 받는 등 정보탐색적인 노후준비행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와 관련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 빨리 진입함에도 불구하고 빨리 은퇴나 퇴직을 하고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비중이 더 높아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박창제, 2008). 반면 여성이 경제적 노후준비를 남성보다 더 잘하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노후준비를 잘한다는 보고(김양이・이채우, 2008)도 있다. 초기노인의 노후준비에 대해 연구한 황승일(2000)도 배우자가 있는 초기노인들이 배우자가 없는 초기노인들보다 노후준비도가 높다고 한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노후준비를 많이 한다(홍성희・곽인숙, 2006; 조추용・송미영・이근선, 2009; 유인순・최수일, 2012)는 보고도 있으나 연령에 따라 노후준비에 차이가 없다(김경화, 2005)는 상반된 보고도 있다. 또 중년층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한다는 연구들(이신영, 2009; 이선형・최은희, 2010; 유인순・최수일, 2012)과 교육수준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들(김경화, 2005; 홍성희・곽인숙, 2006)도 보고되고 있다. 아버지의 은퇴 후 소득과 노후준비는 아버지의 은퇴 전 고용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백은영, 2008) 직업이 있을 때 노후준비를 더 잘하지만(박창제, 2008), 직업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홍성희・곽인숙, 2006)도 있어 직업 유무에 따라 노후준비가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을 통해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을 제시되고 있지만 서로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경제적 노후준비행동과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1) 가계소득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가계소득이 높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며 자신의 욕구와 필요에 맞게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가계소득과 노후준비에 관한 선행연구들(이지은, 2000; 황승일, 2000; 홍성희・곽인숙, 2007; 조성숙・서훈, 2011; 유인순・최수일, 2012)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준비정도가 높고 노후대비 목적으로 저축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성희・곽인숙(2007)은 자산과 소득이 많은 남성봉급자일수록 노후에 대해 미리 계획하는 것으로, 조성숙・서훈(2011) 역시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또한 월 지출금액이 많을수록 노후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유인순・최수일(2012)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사람들보다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노후준비를 더 많이 하고,

중년기 직장남성을 대상으로 한 이지은(2000)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가계가 400만원 미만인 가계보다 노후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빈도가 더 높았다. 이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 더 구체적인 준비가 가능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박보라・신중일, 2012)에서 가계소득은 노후준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은퇴준비를 잘하고 경제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높으며 가계소득에 따라 노후준비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배문조・전귀연, 2010; 이신영, 2009; 이정화, 2009). 박현식・이선형, 최은희(2010)는 예비 노인들이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47.8%)'이며, 삼성경제연구소(2007) 역시 노후대비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소득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2) 교육소비욕구와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교육소비욕구란 부모가 자녀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욕구와 그 교육을 위해 소비하는 행위를 의미하며(김영화・이인효・박현정, 1993),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학습기회의 획득을 위한 즉,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본질적 교육소비욕구와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출세 수단의 획득을 위한 즉, 교육의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구적 교육소비욕구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교육소비욕구는 모든 계층에서 비슷하지만 가계의 한정된 여건이나 교육환경의 차이로 교육욕구의 강도와 실제로 이것이 표출되는 양상은 계층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그러나 가계가 교육소비욕구를 표출하는데 따르는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친구나 이웃 주민, 그리고 미디어 등은 학령기 부모가 사교육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김송이, 2008)하기도 하며, 이러한 보이지 않는 사회적 압력은 조기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주된 계기가 된다(한지혜, 2004).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조성인(2002)은 초・중・고등학생의 부모간에 교육욕구의 내・외적 동기 정도에는 차이가 없.지만 교육욕구의 외적 동기가 높아질수록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며 학업성적 향상과 교사의 교수능력을 기대하는 정도는 높아져서 결국 사교육에의 참여확대로 이어진다고 말한다.

현대경제연구원(2007)은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가구 중 76.8%가 사교육비 지출을 부담스러워 하며, 만약 사교육비 지출부담이 없다면 그 금액을 노후준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음을 보고한다. 또 백은영・문숙재(2005)는 학령기 가계의 1차적인 재무목표는 자녀교육비 마련이고, 2차적인 재무목표가 장기적으로 은퇴준비라고 한다. 즉, 자녀에 대한 높은 교육소비욕구로 인해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가 급증하기 때문(현대경제연구원, 2007)에 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부담은 높아지며,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지출과 저축이 위축되어 노후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이 감소될 수 있다. 이와 맥을 같이 하여 최현자・김정현・김민정(2008)은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 부족과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자금 때문에 여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교육소비욕구로 인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자녀교육비도 줄일 수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는 중년기 가계일수록 노후생활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는 연구결과(조경진, 2011)도 있다.

3)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현대경제연구원(2007)은 가계는 평균 소득 중 19.2%를 사교육비로 쓰고, 이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노후 대비를 포기하는 가정이 57%가 넘으며, 사교육비 부담을 느끼면서도 사교육비 충당

을 위해 부업을 하는 가계가 2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5세 이상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퇴직자의 생활실태를 조사한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2010)는 충분한 준비 없이 퇴직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무려 60%이며, 노후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는 주로 '자녀 교육비 때문(60%)'이라고 밝히고 있다. 마찬가지로 배문조・전귀연(2010)도 30, 40대에 비해 50대의 노후준비 정도가 낮은데, 현재 50대들은 자녀들에 대한 막대한 교육비 지출과 더불어 부모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부양을 기대할 수 없는 과도기 세대로 정작 자신들의 노후준비는 미흡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승신(2012) 역시 50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자들 역시 낮은 소득 뿐만 아니라 교육비 지출로 인해 노후생활비 준비가 미흡하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많은 가계들이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한 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고정옥, 2004)한다. 가계의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그로 인한 부담은 부모의 기본생활권을 침해하고 노후대비 지출을 감소시켜 은퇴결정을 어렵게 만든다(이선형, 2009).

Todd와 Sharon(1997)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25%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노후자금으로 저축한 금액을 사용하였다. 또 노후준비자금과 사교육비 지출과의 관계를 조사한 박미연(2008)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노후준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이 적고, 노후준비자금과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가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다. 또한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많고, 사교육비 지출부담 정도가 크며, 사교육비 증액 의향 역시 높으며,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부업 및 새로운 직장을 얻은 등 다른 지불원천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가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 역시 높았다.

3. 원인변인들 간의 관계

1)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월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교육소비욕구가 높고(조미경, 2006) 해외유학이나 조기유학 등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손준종, 2005)는 연구결과,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령기 부모일수록 사교육의 질을 우선시 하지만 경제적 수준이 낮은 학령기 부모일수록 사교육의 양을 중시한다(남경희, 2004; 이두휴, 2008)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그리고 학령기 가계에서는 계층에 따라서도 교육소비욕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신들이 가진 고급정보를 다른 계층과 공유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드러내며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남혜령, 2011). 이두휴(2008)의 연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있어 사교육 지향성과 엄마주도성이 강하며, 어머니가 적극적인 교육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황행문(2000)은 모든 계층의 절대다수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한 교육에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한 교육소비욕구를 표출한다고 말한다.

2)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계소득 수준이 사교육비 지출 수준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김은미, 2002; 김현진, 2004; 오지수, 2007; 홍성우, 2009; 이재아, 2011)고 보고하고 있다. 고소득층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저소득층 가계의 약 5배 이상(이승신, 2003)이며, 가계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상승(성낙일・홍성우, 2009)한다. 또 고소득층일수록 식료품과 같은

필수재 지출보다 교육비 지출을 더 늘리고 있어 가계소득과 사교육비 지출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박문수・최재연・박지혜, 2014)고 할 수 있다. 또 사회경제적 변수를 통제하고 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가계소득 수준이 올라갈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김현진, 2004; 이은우, 2004)고 보고한다. 반면 오지수(2007)는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 비중이 최상위층 가계보다 중산층 가계가 더 높다고 하며, 백학영・안서연(2012)도 사회 전반적으로 사교육에 대한 욕구가 커질 경우 중산층 가계가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 사교육 지출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한편 우리 나라 어머니들은 계층에 상관없이 사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아 사교육비가 상승하거나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고 지속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할 계획(고정옥, 2004)이다. 한국소비자원(2015)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학부모의 62.7% 가 사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조사대상자의 74.0%가 월 가계소득에서 자녀의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초과한다. 이처럼 사교육비를 지출함으로써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부담감을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라고 한다. 정복주(2010)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으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부담이 크지만 사교육을 중단하게 될 경우 마음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김성자(2004) 역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월평균 가계소득이 적을수록 사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김상호(2004)는 중학교 학부모의 월평균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다고 보고한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은 사교육비 지출이 높을수록 가중된다(이승신, 2003; 함상희, 2010), 자녀가 취학하기 전보다 초・중・고등학생일 경우 월평균 사교육 지출액이 훨씬 높으며, 월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의 경제적 부담 정도가 증가한다(박문수・최재연・박지혜, 2014). 그러나 사교육비가 상승하거나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사교육비를 지출할 계획이며, 계층에 상관없이 사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다(고정옥, 2004). 또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가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의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하고 있다(강창희, 2012). 이와 같이 사교육의 효과를 지각하지 못하면서도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계속 지출하는 것은 개인의 심리적 상태에 불균형을 가져와 지출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을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3) 교육소비욕구와 사교육비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교육소비욕구 표출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역할이 결정적이다(김경근, 2003). 또한 대부분의 가정에서 소비지출을 관리하는 사람이 어머니인 경우가 많아 자녀교육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어머니의0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나영미・윤정혜(2011)의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여부와 지출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의 도구적 교육소비욕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이주(2007)의 연구에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를 더 많이 지출하였다.

김송이(2008)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교육열이 높고, 조미경(2006) 역시 부모의 높은 교육소비욕구는 결국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나영미・윤정혜(2011)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학력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고

지출규모도 유의하게 증가하며, 가계소득과 가계자산이 사교육비 지출규모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노현경(2006)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교육소비욕구가 아니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라고 한다.

부모들이 사교육비 효과를 많이 느낄수록, 가능한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싶은 태도를 가질수록 사교육 비용이 가계경제에 부담을 줄 확률이 높으며(강이주, 2007),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더 시킬 의향이 있다(박미연, 2008).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는 교육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과 지출부담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김인숙·여정성(1996)은 학령기 어머니들이 사교육비를 많이 부담하면서도 주관적인 압박감은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지출을 최소로 줄임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압박감을 줄인 것으로 여겨지며, 사교육비 지출은 하고 있지만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반면 현상진(2004)은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사교육을 시키는 것은 남들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 경쟁심, 학력에 대한 부담 등으로 사교육을 시킨다고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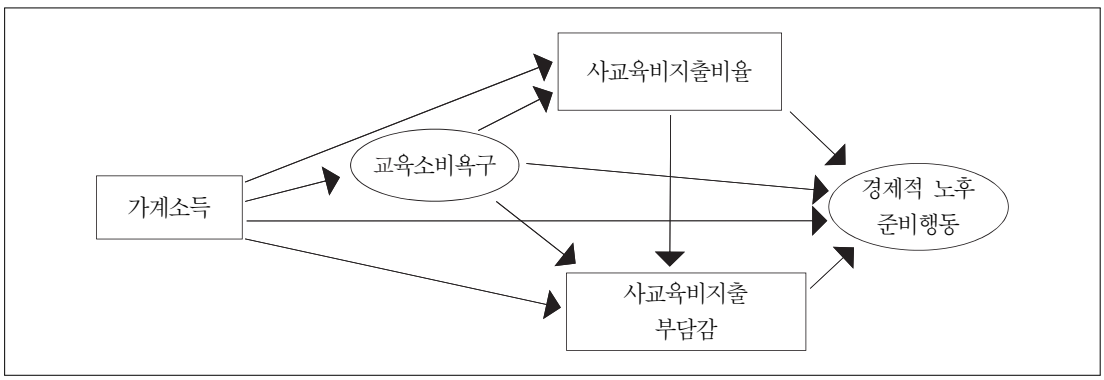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연구모델을 구성하고, 이들 변인들 간의 구조관계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사교육비 지출비율, 사교육비 지출부담감)는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2)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은 교육소비욕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3)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4)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림 1〉 연구모델

2. 측정도구

1)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환경에 대한 질문지는 연구대상자의 연령, 학력, 자녀수와 구성 등과 같은 일반적인 특성에 관한 문항들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직업, 예상은퇴연령, 연금여부 등과 같은 직업 및 은퇴관련 특성들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2) 가계소득

가계소득은 부부의 월 급여, 이자, 부업소득, 보너스, 연금 등을 모두 합산한 월평균금액을 말하며, '150만원 미만'부터 50만원 간격으로 '700만원 이상'까지 연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객관식 문항과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는 주관식 문항의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가계소득은 이 두 질문에 대한 응답을 비교한 결과 두 응답이 일치하였으므로 연구대상자가 직접 기입한 월평균 가계소득을 가계소득으로 하였다.

3) 교육소비욕구 척도

교육소비욕구 척도는 김영화 등(1993), 김경원(2010), 현주(2003)의 척도를 참고로 하여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작성한 다음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1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19문항을 교육소비욕구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학습기회의 획득을 위한 즉, 교육의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질적 교육소비욕구(9문항)로, 요인 2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도달하기 위한 출세수단의 획득을 위한 즉, 교육의 외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도구적 교육소비욕구(10문항)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전체 .89이며, 본질적 교육소비욕구는 .89, 도구적 교육소비욕구는 .86이다.

4) 사교육비 척도

(1) 사교육비 지출비율

사교육비 지출액은 자녀 1인이 아닌 자녀 전체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의미하며, 국어(논술, 속독 등), 수학, 외국어(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각각의 과외비·학원비와 그 외 학업(종합, 과학, 사회 등) 관련 과외비·학원비, 학업 관련 방과 후 수업 등을 포함하는 학업교육비와 음악 및 미술 과외비·학원비, 체육(축구, 태권도 등) 활동비, 문화체험비, 예·체능 관련 방과 후 수업 등을 포함하는 예·체능교육비로 나누어 기입하도록 하고, 이들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학업교육비와 예·체능교육비를 모두 합한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을 월평균 가계소득으로 나눠 백분율한 것을 의미한다. 가계지출의 절대액수는 가계소득의 차이를 반영하기 쉬운 반면 각 항목이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소비패턴의 차이를 반영하기(이성림, 2005)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액이 아니라 사교육비 지출비율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사교육비 지출부담감 척도

사교육비 지출부담감 척도는 고정옥(2004), 함상희(2010), 박미연(2008)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계의 내구재 구매, 외식, 여행, 저축, 의료비, 부모님 용돈 등을 줄였다거나 대출이나 카드 값을 제때 갚지 못했다, 혹은 사교활동이나 자기개발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92이다.

5)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척도**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척도는 이영주(2010), 박지선(2004), 김희정(2010), 손원(2010)의 척도를 수정·보안하여 총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2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이 중 내용상 관련이 없는 요인에 포함된 1문항을 제외시키고 총 17문항을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요인의 문항을 검토한 결과, 요인 1은 노후를 대비한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교육을 받는 등의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보탐색 행동(8문항)으로, 요인 2는 본인이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실질적인 지출행동에 관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재무관리 행동(9문항)으로 명명하였다. 본 척도의 Cronbach α 계수는 전체 .85이며, 정보탐색 행동은 .84, 재무관리행동은 .81이다.

3.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3년 7월 8일~12일까지 학령기 어머니 84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본 조사는 2013년 8월 26일~30일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남편이 근로소득자이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1명 이상 둔 학령기 어머니 45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학령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일하는 직장이나 마트, 시장 등에서 학령기 어머니들에게 배부·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421부의 질문지 중 아버지가 근로소득자가 아닌 질문지와 부실기재 된 질문지를 제외한 총 39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에 거주하고 남편이 근로소득자이며,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1명 이상 둔 어머니들 393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자녀교육은 부모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가 주로 담당하고 있고, 교육소비욕구 표출에 있어서도 어머니들의 역할이 결정적이기(김경근, 2003) 때문이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아버지가 가계의 경제적 부양에 있어 주된 책임자로 인식되고 있고,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대체로 어머니보다 클 뿐 아니라, 은퇴 후 소득과 노후준비는 은퇴 전 고용형태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백은영, 2008)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근로소득자인 가계로 연구대상자를 제한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직업 및 은퇴와 관련된 특성은 <표 2>와 같다.

5.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19.0과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림 1>의 연구모델을 <그림 2>와 같은 통계적 검증모델로 설정하여 AMOS 프로그램을 이용한 구조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사교육관련 일반적 특성

(N=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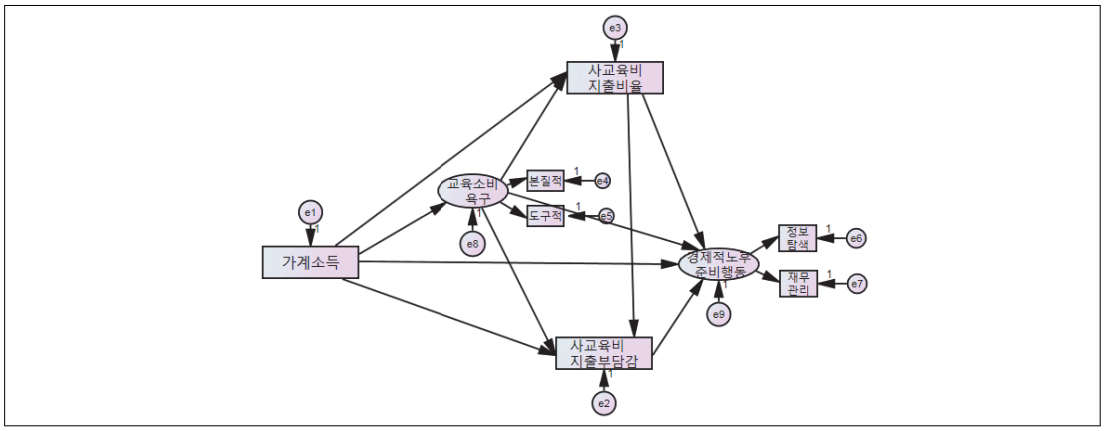
특성	내용	인원(%)	특성	내용	인원(%)
어머니 연령	30세 미만	6(1.5)	아버지 연령	30세 미만	0(0.0)
	30세~39세	218(55.5)		30세~39세	141(35.9)
	40세~49세	154(39.2)		40세~49세	222(56.5)
	50세 이상	15(3.8)		50세 이상	30(7.6)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6(1.5)	아버지 학력	중졸 이하	4(1.0)
	고졸	59(15.0)		고졸	24(6.1)
	전문대졸	170(43.3)		전문대	142(36.1)
	대졸	150(38.2)		대졸	201(51.1)
	대학원 이상	8(2.0)		대학원 이상	22(5.6)
거주형태	자가	217(55.2)	자녀수	1명	112(28.3)
	전세	156(39.7)		2명	260(66.4)
	월세	11(2.8)		3명	21(3.3)
	기타	9(2.3)			
학업적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1(.3)	예・체능 사교육에 대한 만족도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	2(.5)
	만족하지 못한다	30(7.6)		만족하지 못한다	18(4.6)
	보통이다	153(38.9)		보통이다	171(43.5)
	만족한다	175(44.5)		만족한다	179(45.5)
	매우 만족한다	18(4.6)		매우 만족한다	17(4.3)
	무응답	16(4.1)		무응답	6(1.5)
사교육비 마련	저축을 줄여서 충당	128(32.6)	사교육비 추가지출 의향	전혀 없다	5(1.3)
	저축한 돈에서 충당	56(14.2)		없다	34(8 .7)
	생활비를 줄여 충당	179(45.5)		보통이다	214(54.4)
	취업・부업	18(4.6)		있다	93(23.7)
	기타	12(3.1)		매우 있다	47(12.0)
계		393(100)	계		393(100)
자녀 연령	7세 이하	118(17.0)	생활 수준	하	8(2.0)
	8-13세	333(47.9)		중하	81(20.6)
	14-16세	126(18.1)		중	255(64.9)
	17-19세	97(14.0)		중상	46(11.7)
	20세 이상	21(3.0)		상	3(0.8)
계		695(100)	계		393(100)

교육소비욕구의 경우 하위척도인 본질적, 도구적 교육소비욕구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은 정보탐색, 재무관리행동을 지표변수로 선정하여 총 8개 측정변수들에 대한 다변인정규분포성을 검증하고, 최대 우도측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절차를 적용하여 모델의 부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였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직업 및 은퇴관련 일반적 특성

(N=393)

특성	내용	인원(%)	특성	내용	인원(%)
어머니 직업	임시직	47(12.0)	아버지 직업	임시직	4(1.0)
	생산직	36(9.2)		생산직	140(35.6)
	사무직	65(16.5)		사무직	205(52.2)
	서비스직	25(6.4)		서비스직	2(0.5)
	행정관리직	2(0.5)		행정관리직	23(5.9)
	전문직	10(2.5)		전문직	19(4.8)
	자영업	9(2.3)		자영업	0(0.0)
	무직/전업주부	198(50.4)		무직/전업주부	0(0.0)
	기타	1(2.5)		기타	0(0.0)
노후준비 시작시기	30대부터	72(18.3)	경제적 노후준비도	전혀 충분하지 못하다	23(5.8)
	40대부터	148(37.7)		충분하지 못하다	130(33.1)
	50대부터	91(23.2)		보통이다	218(55.5)
	60대부터	12(3.1)		충분하다	20(5.1)
	퇴직과 동시에	70(17.8)		매우 충분하다	2(.5)
경제적 노후준비가 되지 않는 이유	주택・대출상환	130(33.1)	소득	200만원미만	1(0.3)
	사회보장을 기대	21(5.3)		200-300만원미만	50(12.7)
	자녀양육・교육비	175(44.5)		300-400만원미만	182(46.3)
	자녀에게 의지	9(2.3)		400-500만원미만	135(34.3)
	필요하지 않음	18(4.6)		500-600만원미만	19(4.9)
	관심없음	25(6.4)		600만원이상	6(1.5)
	기타	15(3.8)			
어머니예상 은퇴연령	50세 미만	39(9.9)	아버지예상 은퇴연령	50세 미만	19(4.8)
	51-55세 미만	62(15.8)		51-55세 미만	42(10.7)
	55-60세 미만	61(15.5)		55-60세 미만	179(45.5)
	60세 이상	78(19.8)		60세 이상	142(36.1)
	은퇴없음	152(38.7)		은퇴없음	9(2.3)
	무응답	1(0.3)		무응답	2(0.5)
어머니 연금여부	퇴직금	74(18.8)	아버지 연금여부	퇴직금	230(58.5)
	퇴직연금	52(13.2)		퇴직연금	82(20.9)
	퇴직금・퇴직연금	5(1.3)		퇴직금・퇴직연금	25(6.4)
	특수직역연금	11(2.8)		특수직역연금	20(5.1)
	연금없음	250(63.6)		연금없음	33(8.4)
	무응답	1(0.3)		무응답	3(0.8)
계		393(100)	계		393(100)



〈그림 2〉 통계적 연구모델

IV. 연구결과

1.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상관행렬 및 기술 통계치

통계적 모델하의 측정변인들간의 상관행렬 및 측정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추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 초기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추정결과

최대우도추정법을 이용하여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를 추정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합도 지수가 SRMR의 경우 .049로 .05이하로 나타났고, CFI의 경우도 .90을 넘어 본 모형이 적합도가 좋은

〈표 3〉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행렬표 및 왜도, 첨도

(N=393)

	1	2	3	4	5	6	7
1. 가계소득	1.0						
2. 도구적교육소비욕구	.27**	1.0					
3. 본질적교육소비욕구	.40**	.35**	1.0				
4. 사교육비 지출비율	.08	.09	.03	1.0			
5. 사교육비 지출부담감	-.07	-.15**	-.13**	.36**	1.0		
6. 정보탐색행동	.48**	.01	.22**	.25**	.20**	1.0	
7. 재무관리행동	.19**	-.01	-.03	.32**	.21**	.34**	1.0
평균	382.2	3.7	4.0	13.8	2.4	1.8	1.9
표준편차	81.2	0.5	0.4	6.1	.6	0.5	0.5
왜도	.26	-.02	-.20	-.61	-.16	.75	1.30
첨도	1.07	.33	.11	.47	-.31	.45	1.66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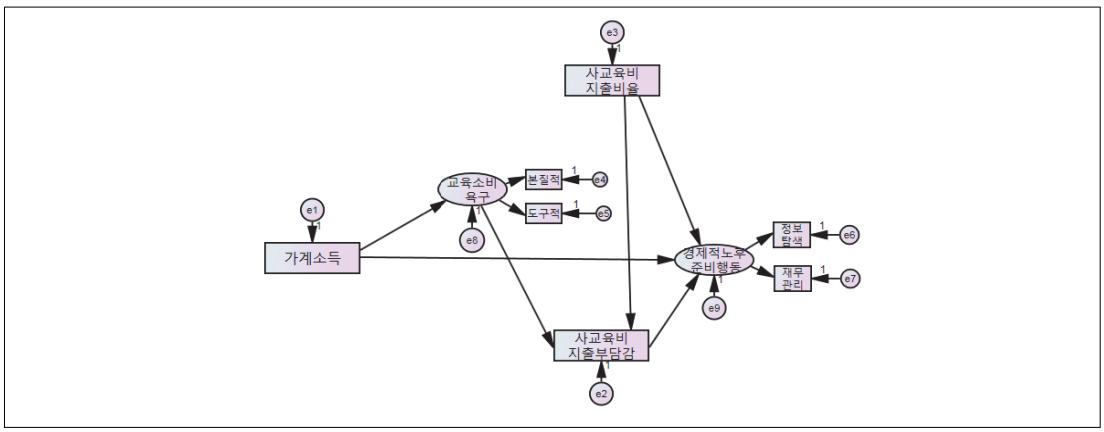
〈표 4〉 연구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연구모델	21	7	33.55	4.78	.806	.049	.935	.067	.093

〈표 5〉 연구모델의 모수치 추정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결과

직접효과	비표준화 계수	S.E	C.R	P	표준화 계수
가계소득→경제적노후준비행동	.003	.000	8.06	***	.651
교육소비욕구→경제적노후준비행동	-.103	.135	-.76		-.079
사교육비지출비율→경제적노후준비행동	.018	.004	4.71	***	.280
사교육비지출부담감→경제적노후준비행동	.141	.037	3.78	***	.237
가계소득→교육소비욕구	.002	.000	8.32	***	.566
가계소득→사교육비지출비율	.006	.005	1.19		.086
가계소득→사교육비지출부담감	.000	.001	.73		.052
교육소비욕구→사교육비지출비율	-.341	1.80	- .18		-.017
교육소비욕구→사교육비지출부담감	-.583	.213	-2.74	**	-.267
사교육비지출비율→사교육비지출부담감	.040	.005	7.58	***	.359

** p<.01, ***p<.001



〈그림 3〉 수정된 연구모델

모형임을 알 수 있다. RMSEA의 경우 최소값이 .068, 최대값이 093의 적합도를 보여 본 모형이 좋은 모형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CFI, SRMR, RMSEA를 비롯한 모든 부합도 지수가 부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모델하의 모수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 연구모델인 구조회귀모델의 경로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교육소비욕구가 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과 사교육비지출비율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가계소득이 사교육비지출비율과 사교육비지출부담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 경로를 삭제시킨 간명한 모델을 <그림 3>과 같이 수정하여 설정하였다.

3. 수정된 연구모델의 부합도 및 모수치 추정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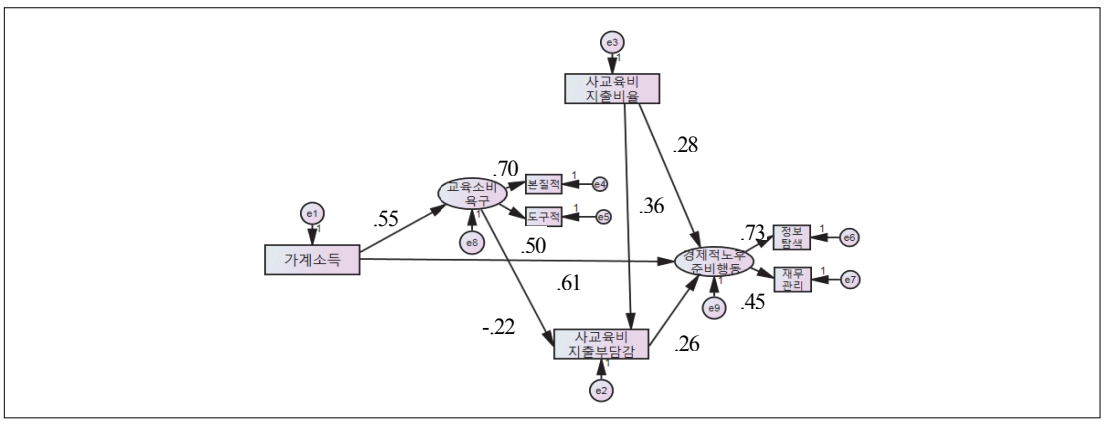
<표 5>를 기초로 보다 간명한 모델로 수정한 수정된 연구모델을 최종연구모델로 선택한 다음 부합도를 다시 추정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모델의 부합도 지수가 초기모델보다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수정된 연구모델의 모수치를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 <표 7>과 같다.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계소득→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사교육비지출비율→경제적 노후준비행동, 사교육비 지출부담감→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가계소득→교육소비욕구, 교육소비욕구→사교육비 지출부담감, 사교육비 지출비율→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그 밖의 교육소비욕구→경제적 노후준비행동, 가계소득→사교육비 지출비율, 가계소득→사교육비 지출부담감, 교육소비욕구→사교육비 지출비율의 경로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계소득, 사교육비 지출비율,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은 학령기 어머니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계소득은 교육소비욕구에, 그리고 교육소비욕구와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육소비욕구와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수정된 연구 구조회귀모델의 부합도 지수

모델	NPAR	DF	CMIN	NC	TLI	SRMR	CFI	RMSEA(.07)	
								LO90	HI90
수정모델	17	11	36.89	3.35	.880	.054	.937	.051	.085



〈그림 4〉 수정모델의 모수치 추정결과

〈표 7〉 학령기 어머니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의 직·간접 효과 분해표

경 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계소득→경제적노후준비행동	.59	.61***	-.03***
교육소비욕구→경제적노후준비행동	-.06	-	-.06***
사교육비지출비율→경제적노후준비행동	.37	.28***	.09***
사교육비지출부담감→경제적노후준비행동	.26	.26***	-
가계소득→교육소비욕구	.55	.55***	-
가계소득→사교육비지출비율	-	-	-
가계소득→사교육비지출부담감	-.12	-	-.12***
교육소비욕구→사교육비지출비율	-	-	-
교육소비욕구→사교육비지출부담감	-.22	-.22***	-
사교육비지출비율→사교육비지출부담감	.36	.36***	-

** p<.01, ***p<.001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및 사교육비가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학령기 어머니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결과변인으로 하고, 원인변인으로 가계소득, 교육소비욕구, 사교육비지출비율과 지출부담감을 선정하고 구조방적식 모형을 설정하여 모델의 부합여부와 경로계수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얻어진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 사교육비 지출비율 및 지출부담감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소비욕구는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많은 학령기 어머니들일수록 가계소득 대비 가계지출에 여유가 있고, 실질적으로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지출행동들이나 자산관리에 대한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등의 정보탐색 행동들을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고(박창제, 2008; 조성숙·서훈, 2011; 유인순·최수일, 2012), 노후준비도도 높다(김기태, 2004; 박민숙, 2007; 배문조·전귀연, 2010)고 하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하다.

또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은 일반적인 가계들보다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높은 이러한 지출구조가 노후의 경제적 불안으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제적 노후준비 방법을 찾고 실행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이 현실적인 가계의 재무구조의 순위를 바꿔 놓았다(함상희, 2010)고는 하지만 학령기 어머니들이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인식하고 노후준비와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소비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계의 소비지출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부담감

이 높을수록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의 학령기 어머니들이 노후준비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박주선, 2014)하고 있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아질수록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어 경제적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고 상담을 받는 등의 다양한 준비행동을 많이 하게 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와 사교육비 지출비율은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낮을수록,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클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커지고,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커질수록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교육소비욕구는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고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소비욕구는 외적인 행동으로 실현된 것이 아닌 내적인 상태이므로 실제적인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신의 교육소비욕구로 인해 경제적 부담감을 지각하게 될 때 이러한 부담감은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통해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감이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더 많이 하게 하는 동기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 오히려 심리적 부담감은 스트레스원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구성원들의 요구와 삶의 지향점을 고려하여 가계의 장·단기적인 재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가계재무관리 활동이 가계의 소득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행된다면 자신의 지출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도 감소시키면서 경제적 노후준비도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가계소득은 노후의 경제적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출행동을 선택하고, 자산관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교육을 받는 등의 경제적 노후준비행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적 노후준비를 하는데 있어서는 금전적인 여유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말해주는 결과이며, 현재 재정상태가 양호해야 경제적 노후준비행동도 더 많이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현재의 생활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상승시켜 가려는 본질적 욕구를 가지고 있으므로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갑작스럽게 생활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학령기 어머니들은 자신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노후자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경제적 노후준비 계획을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교육소비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이 가계소득이 낮은 학령기 어머니들보다 자녀교육에 대해 고민하고 자녀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더 많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경제적 범위가 넓고 기회 충족의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더 높은 기대수준을 갖게 되어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에 대한 기대가 높고(서혜경, 2004; 조미경, 2006), 자녀교육열이 높다(김송이, 2008)는 연구결과, 그리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나 열의나 지원행위 등의 교육소비욕구가 더 높다(나영미·윤정혜, 2011)는 연구결과들과 유사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때 가계소득이 높은 학령기 어머니들은 자신의 과도한 교육소비욕구 표출이 교육의 양극화, 세대간 소득 불평등을 확대 시킬 수도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가계의 장기적인 목표를 중심으로 가계소득을 보다 합리적·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자녀교육에 대한 소비욕구를 적절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비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교육소비욕구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노현경, 2006) 가계소득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장윤옥, 2013)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다소 일치한다고 하겠다. 반면 가계소득이 많을수록(김은미, 2002; 김현진, 2004),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다(강이주, 2007)의 선행연구들과는 다소 상이하다고 하겠다. 이는 가계소득이나 자녀에 대한 기대교육수준에 따른 절대적인 사교육비 지출액을 살펴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전체 가계소득 대비 사교육비 지출액의 백분율인 사교육비 지출비율을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이 커지는 것은 당연할 수 있으나 전체 소득 중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소득에 비례하여 커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이나 교육소비욕구에 비례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며, 가계소득 수준이나 교육소비욕구의 수준에 관계없이 개별가게 마다 소득과 관련하여 일정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학령기 어머니의 교육소비욕구가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계소득은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소비욕구가 높은 어머니들은 사교육비 지출이 미래를 위한 중요하고 필수적인 투자이며 지출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낮을 수 있다. 반면에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요구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과 관련된 주변의 분위기나 사회적 압력의 영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껴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는 교육소비욕구가 낮은 어머니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기대가 그다지 높지 않아 사교육비 중심의 소비지출이 아닌 균형적 소비지출에 중심을 두어 다소 불필요하게 지각되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더 크게 느껴 나타난 결과일 것으로도 생각된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사교육 결과에 대한 만족감뿐 아니라 부모의 교육소비욕구의 충족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교육적 만족감이 높을 때는 주관적인 부담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다는 김인숙·여정성(1996)의 연구결과와 다소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정이 허락한다면 사교육을 가능한 많이 시키고 싶은 태도를 가질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다고 하는 강이주(2007)의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다.

또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가계소득이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성림(2005), 장윤옥(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데, 가계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사교육비 지출을 필수적인 소비지출 비목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가계소득 수준 내에서 어느 정도의 부담은 부모로써 감수해야 하는 당연한 것은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학령기 어머니의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높은 어머니들이 제한된 가계소득 내에서 줄여야 하는 기타의 다른 가계소비지출이 사교육비 지출비율이 낮은 어머니들 보다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부담감이 높게 나타난 함상희(201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학령기 어머니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학령기 어머니 스스로가 가계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관리능력을 함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부모들의 무조건적인 사교육 의존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 및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다른 지출에 제약을 주게 되므로 경제적 노후준비를 잘 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필수적 지출로 생각하는 인식을 버리고, 자녀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지출인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학령기 가계가 노후준비와 자녀교육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 증가를 위한 노력 뿐 아니라 적정한 사교육비 지출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 그 내에서 지출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부모의 교육소비욕구로 인한 무분별한 사교육은 부모의 은퇴·노후설계를 어렵게 만들고 길어진 노년기를 더 힘든 시기가 되게 할 수 있으므로. 사교육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국가는 공교육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고, 노후준비와 관련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며, 가계는 재정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재무설계를 하여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재정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차이는 분석하지 않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연령에 따라 대상을 세분화하여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노후준비에 대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보다 명료하게 알 수 있을 것이며, 각 가계가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보다 균형있는 가계재무설계를 하는데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가 사교육비 지출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비 지출은 가계의 소득수준이나 자녀교육에 대한 욕구와 무관하게 보편화된 현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계의 다른 소비지출 비목과 지출비율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계 소비지출 비목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사교육비 지출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가 어떤 소비지출 비목의 지출을 감소시키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보다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강이주(2007).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관련요인 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16(2), 315-331.
2) 강창희(2012).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 연구: 중학교' 자료를 이용한 사교육비 지출의 성적 향상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 34(2), 141 -171.

3) 고정옥(2004).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경근(2003). 한국사회의 교육열과 청년실업. 교육학연구, 41(4), 87-105.
5) 김경원(2010). 개인가치와 교육열이 교육관광 상품 만족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김경화(2005). 중년층의 노후생활준비에 관한 의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김기태(2004). 장년층 노후준비태도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 김문을(2002). 중년층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스트레스 연구.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 김민정・김기옥(2008). 소비욕구 측정을 위한 척도개발. 소비자학연구, 19(1), 1-23.
10) 김상호(2004). 김해지역 사교육비 지출실태와 경감방안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김성자(2004). 울산광역시 초등학생의 사교육 실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김송이(2008). 한국 어머니의 자녀교육열 : 가정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6(2), 13-23.
13) 김수현(2009). 직장인들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 공주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김시월(199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부담감과 경제적 복지감과의 관련성 연구. 한국소비자학회, 10(3), 101-121.
15) 김양이・이채우(2008). 중년층의 노후준비 수준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19, 55-82.
16) 김영화・이인효・박현정(1993).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7) 김은미(200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행태 분석.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8)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137-149.
19) 김현진(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20) 김희정(2010). 청・장년층의 노후 준비의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1) 나영미・윤정혜(2011). 어머니의 자녀교육열과 가계 특성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생활과학회지, 20(6), 119-1212.
22) 남혜령(2011). 한국사회의 계층별 영어교육열과 교육격차에 관한 연구: 문화재생산 이론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3) 노현경(2006). 학부모 및 학생 관련 요인과 사교육비 지출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4(1), 97-118.
24) 박문수・최재영・박지혜(2014).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형태 분석과 시사점 : 교육비 지출을 중심으로. 서울 : 산업연구원.
25) 박미연(2008).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자금과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27) 박민숙(2007). 중년의 노후생활준비도 및 요양시설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8) 박보라・신중일(2012). 병원 근로자의 노후생활 준비도 연구.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4(1), 79-89.
29) 박주선(2007). 장년층의 노후생활 준비 의식 및 대책 연구: 서울시에 거주하는 30・40대 직장 근로 소득자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0) 박지선(2004). 사회복지사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1) 박창제(2008). 중・고령자의 경제적 노후준비와 결정요인. 한국사회복지학, 60(3), 275-297.
32) 박현식・이선형・최은희(2010). 충청남도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거주 지역 고령화 비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285-315.
33) 배문조・전귀연(2010). 성인기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준비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1), 13-24.
34) 백은영(2008). 은퇴 후 소득 적정성 및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보장연구, 24(2), 27-51.
35) 백은영・문숙재(2005).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 본 가계의 재정목표, 문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 질적 접근방법의 적용. 소비자학연구, 16(2), 87-109.
36) 백학영・안서연(2012).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한국사회정책학회지, 19(3), 9-47.
37) 삼성경제연구소(2007). 4/4분기 소비자태도조사 부가조사 : 노후대비에 대한 가계조사, 제96호.
38) 서혜경(2004).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머니의 자녀교육 관심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9) 성낙일・홍성우(2009). 우리나라 사교육비 결정요인 및 경감대책에 대한 실증분석. 응용경제, 10(3), 183-212.
40) 손 원(2010). 중년기 가계의 경제적 노후준비 분석 : 부부취업상태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 손상희・정영숙(2003).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문제와 디지털 시대의 해결방안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49-60.
42) 손준종(2005). 누가 교육을 위해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가? : 교육관련 '탈'한국 현상의 사회적 성격 분석. 한국교육사회학연구, 15(2), 95-120.
43) 양세정・이성림(2008). 노후 경제적 대비 여부에 따른 가계 경제의 차이와 재무관리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7(1), 1-16.
44) 양정선(2009).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생활의 질. 경기도 : 가족여성연구원.
45) 오지수(2007).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교육 인식과 자녀양육 스트레스.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6) 유경원(2007). 가계의 교육비와 저축간 관계 분석.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 : 국제금융연구, 312, 1-38.
47) 유민상(2008). 사교육비 지출이 노후대비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8) 유인순・최수일(2012). 베이비부머의 성격특성이 노후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 천안지역 공단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4), 245-262.
49) 이두휴(2008). 자녀교육지원활동에 나타난 학부모 문화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8(3), 135-165.
50) 이선형(2009). 자녀교육비 및 노부모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 둘째자녀 출산의도와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 20-45세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2), 43-64.
51) 이선형・최은희(2010). 안정적 노후준비가계의 특성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 예비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4), 193-212.
52) 이성림(2002).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7), 101-118.
53)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54) 이성림(2006).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한국소비자학회, 17(2), 115-132.
55)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 소득계층별 접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51-169.
56) 이승신(2012). 노후생활비 준비에 따른 연금수급액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0(2), 137-152.
57) 이신영(2009). 도시거주 노인의 경제적 노후준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 연구. 사회과학논총, 28(1), 205-224.
58) 이영주(2010). 중년기 부부의 노후준비도와 노화불안.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지, 22(2), 1-31.
60) 이재아(2011). 유아 사교육 참여여부 및 사교육비 지출 현황 분석.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1) 이정화(2009). 광주・전남 중년층의 노년기 인식과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노후준비 :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0(2), 275-289.
62) 이지은(200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 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 이철용・윤상하(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LG경제연구원.
64) 이해근(200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예비노인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 임경은(1999). 도시 저소득 중년층의 노후생활 준비에 관한 연구: 광주광역시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6) 장민자(2003). 청장년층의 노후생활 대책에 대한 의식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7) 장윤옥(2013). 학령기 어머니의 가계소득과 교육소비욕구에 따른 사교육비와 경제적 노후준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5), 211-231.
68) 정복주(2010). 초등학교 학부모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9) 정애리(2007).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0) 조경진(2011). 중년기 가계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공교육비지출 유무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1) 조미경(2006).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연구 :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분석.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2) 조민정(2007).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에 미치는 부담 정도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3) 조성숙・서훈(2011). 중년남성의 직장생활과 배우자와의 관계가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54, 211-235.
74) 조성인(2002). 교육열의 내재적・외재적 동기와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태도.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5) 조추용・송미영・이근선(2009). 중년층의 노후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3, 135-156.
76) 최현자・김정현・김민정(2008). 가계의 저축의사결정. 소비자학연구, 19(4), 211-237.
77) 통계청(2013).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78) 통계청(2015). 2014년 사교육비・의식조사 결과 발표. 통계청.
79) 한국교육개발원(2011). 2020 교육환경 전망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교육개발원.
80) 한국소비자원(2015). 초등학생 사교육 실태조사. 한국소비자원.
81) 한지혜(2004).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조기교육열. 열린유아교육연구, 9(1), 219-251.
82) 한혜진(2013). 1인 가구의 경제적 노후준비 및

재정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3) 함상희(2010). 병원근무자의 노후준비의식과 노후대책에 사교육비가 미치는 영향 : 동대문구 종합병원 근무자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4) 현주(2003).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85) 현대경제연구원(2007). 사교육・노후불안의 주된 원인 : 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 규모 추정. 현대경제연구원.
86) 현상진(2004). 제주도의 사교육 실태 조사 및 분석 : 제주도서귀포교육청 산하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7) 홍성우(2009).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실증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88)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분석 :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89) 홍성희・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 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89-104.
90) 황승일(2000). 초기노인의 노후관련태도와 노후준비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1) 황행문(2000). 사회계층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열 연구 : 제주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92) Todd, K. J. & Sharon A. D.(1997).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by parents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1), 25-32.

■ 투 고 일 : 2015년 12월 30일
■ 심 사 일 : 2016년 1월 29일
■ 게재확정일 : 2016년 2월 22일